

기도

1.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잠언 1~9장을 많이 인용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역 공과

2022년 3월 20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로마서 6장 1~6절 (10장, 446장)

본문은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1~2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했습니다(롬5:20).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넘치니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1절). 이처럼 죄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사용해도 죄이고,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죄를 범한 과정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2절).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죽음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심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깨닫고, 내 속에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씀입니다(3~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3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절기에 맞춰서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거듭난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동안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6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지 옛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롬8:1~2).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연합이 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